

한국 IT 미래를 주도하다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육부 주관 최우수 학과 선정



▶대학 전경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이 10월 24일 '2022년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5번째인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개선·운영하고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산업 분야 평가를 추가했다. 기업 연계 현장실습, 취업 연계 교육과정 개설, 산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대학의 자체적인 산학협력 모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표에 반영했다.

올해 평가 분야는 ▲정보통신 ▲토목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4개 분야로 총 26개 대학 42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4개 대학 18개 학과를 최우수 대학(학과)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평가를 추가했으며, 기업 연계

현장실습, 취업 연계 교육과정 개설, 산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대학의 자체적인 산학협력 모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표에 반영했다.

공익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평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계 및 대학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대학의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 운영 및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중심으로 평가했다.

산업계의 경우 ▲LG유플러스 ▲LG화학 ▲SK텔레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현대엔지니어링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각 대학을 평가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교육부, 경제5단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동명의로 인증패가 수여되며, 성과 공유를 위해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의 인공지능응용학과는 2019년 소프트웨어 학과를 필두로 연간 20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학부 체계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AI심화트랙을 새롭게 개설해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AI-X 융합연구소를 개소해 학부생 중심으로 다수의 인공지능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I-X 융합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혁신 인재 양성 사업'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돼 AI+콘텐츠 융합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첫 결과물로 문화체육 콘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아이돌 공연을 기획했다.

인공지능 가상 아이돌 공연은 참가기관인 그래픽 AI 전문가인 ㈜벨스나인과 함께 22명의 교육생은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사와 같은 4명의 가상 아이돌을 제작하고 인공지능으로 작사 작곡한 곡을 가상의 아이돌이 우리 대학의 쇼방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인공지능응용학과만의 새로운 도전은 ▲뮤

지컬 ▲방송 ▲컴퓨터그래피 ▲AI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했던 각 분야 간에 경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인재들을 배출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학부생 중심의 프로젝트 또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사업에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부산시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 인공지능 종합 전시회인 'AI KOREA 2022'에 참가해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및 프로젝트, VR, 빅데이터에 기반한 각종 결과물을 전시 및 시연했다.

AI KOREA 2022는 다양한 전공이 융합된 작품을 쉽고, 재밌게 소통할 기회가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의 훌륭한 결과물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됐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한일관계의 미래를 제시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부산극동포럼 강연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은 부산극동방송(지사장 성영호 목사)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회 부산극동포럼에서 강사로 초청됐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하고, 나라·지역·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장재국 동서대학교 총장은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사로 나선 장재국 총장은 미국 조지 와싱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2001년)을 수료하며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워왔다.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전문가로, 한일 차세대 학술 포럼 대표(2004년~현재)를 비롯해, 부산-후쿠오카 포럼 대표간사(2006년~현재), 한일포럼 운영위원(2007년~현재), 한일국제한미당 한국 측 실행위원을 맡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해 오고 있다.

금번 제5회 부산극동포럼에서 장재국 총장은 깊고 넓은 한일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한일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장재국 총장은 "오늘 특강에서는 1900년부터 2030년까지 130년을 얘기하려는데, 주어진 시간이 60분이라 나눠 보니 3초에 1년을 해야 한다"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장재국 총장은 과거를 벗어난 한일관계 미래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렵고 혼란한 현 국제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경색된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것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화해를 이루고 복음화를 극히 낮은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요청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돕는 비전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는데, 그 기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라며 당부했다.

부산극동포럼은 기독교 세계관을 조망하고, 나라·지역·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LINC 사업단

산학협력 EXPO 교육부 장관상 수상



▶LINC 3.0 사업단 황기현 단장, 윤정원 교수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해 2개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LINC 3.0 사업단은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 부문에서 'AI 스타트업과 패션 중견기업 간 상생 프로젝트: AI 패션 스마트미러 개발 및 백화점 적용'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AI 패션 스마트미러'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착용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고 매장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 서비스 제품으로 동서대 LINC 3.0 사업단과 AI 기반 플랫폼 개발업체 '사맛다'와 '서르', 부산 소재 쇼핑몰 '아트몰' 등이 함께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프로젝트 해결 과정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했으며,

지역 리테일 혁신과 지역과 기업 공생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부문)에게는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 운영하고 있는 윤정원 교수(인공지능응용학과)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윤정원 교수는 취업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및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 지원 체계 확고와 기업에 안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윤정원 교수는 취업 지원 기반 조성 및 학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남 길곡호배움터와 부곡행복마을학교 학생들에게 드론의 원리, 비행 실습 등을 체험하는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미



▶ESG 아이디어톤 수상

래 리본 탐구와 드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AISUN 산학협력에 참여한 융합학부 학생들이 교수와 전문가의 지도 아래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2022 산학협력 EXPO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성과와 활약을 빛냈다.

2022년 LINC 3.0 산학협력 교육과정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광고홍보학과 김유진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롯데디자인즈 야구단 홍보영상 'Win the moments <순간을 즐겨라>'(지도교수 광고홍보학과 류도상)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의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다.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팀의 경우 지난 182호에서 '야구 좋아하세요?'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제작 스

토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신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학협력 EXPO의 부대행사로 ESG 대학 연합이 주최하는 제1회 ESG 아이디어 톤에서는 인공지능학과 유태정 외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우수상(제주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 황기현 단장은 "산학협력 EXPO에서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의 성과가 빛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학생들의 성과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미래의 창업을 선도한다!

2022 동남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수상사진

우리 대학이 동남권 13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하고 교육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2022 동남권 LINC 3.0 창업 노마드캠프 &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제주에서 열었다.

이 대회는 우리 대학을 포함한 동남권 13개 대학(경남대, 경상국립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소속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13개 대학별 경진대회와 대학 간 혼합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등 5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별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유태정(팀장), 경영학과 황승환(발표),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육창화, 이준서, 최유미 등 5명으로 구성된 동서대 팀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AI분리수거함'을 발표하여 우수상인 LINC 3.0 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대학 간 혼합팀 경진대회에서는 동서대

학생들이 포함된 팀들이 각각 최우수상(부산장조경제혁신센터장상)과 우수상(LINC 3.0 협의회장상)을 받았다.

우리 대학 LINC 황기현 사업단장은 "동남권 대학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시켜 청년 기업인을 발굴하는 등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하며,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NC 사업단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 대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대학과 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창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데이를 개최했다.

네트워킹데이를 통해 창업보육센터 간 교류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미래의 창업을 선도할 것이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재선정

5년간 사업비 20억 원 지원 확정!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재선정 기념사진

우리 대학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에 재선정됐다. 앞으로 2028년 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모델이다. 이 사업은 대학-기업 간 인력수급 mismatch 따른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교육훈련 제도로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한국형 도제제도의 '일학습병행'을 결합한 제도다.

이를 시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은 국내 대학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단이다.

기업은 신입사원의 과다한 재교육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에게는 직무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

력 확보를 도와 사업체와 대학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담당 업무로는, IPP와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IPP는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 일터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할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까지 우리 대학은 5년 동안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간의 사업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약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재선정은 최근 3년간의 ▲성

과평가 결과 ▲학교의 사업 수행 의지 ▲산학협력 우수성 등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우리 대학은 '기업-학생-대학'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취업 프로세스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에 선정된 이후, 5년간 훈련을 이수한 학생은 장기현장실습 554명, 일학습병행 138명에 달한다. 특히 선도적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다.

또한, 기업 수요 맞춤형 평생형 솔루션 및 선도적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에 힘써 예정이다.

우리 대학의 송강영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장은 "5년간 동서대학교만의 산학협력 내실화와 현장연계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주신 교내외의 사업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5년간은 일학습병행 질적 향상과 산학협력 우수모델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5일 부산과라디아스호텔에서 <2021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47개 기업에서 104명의 재학생이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고 17개 기업에서 33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했다.

▲씨제이대한통문 클립나인브릿지 ▲세이인관세법인 ▲SMDV ▲에코마인 ▲에스엠씨이엔아이티 ▲주식회사 에이티소프트 ▲인타운 ▲주식회사 맵스코 ▲제일전기공업 ▲주식회사 토아스 등 총 10개 기업이 사업 참여와 학생지원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총 137명의 사업 참가자 중 13명의 우수참가자를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학과장 인터뷰 - 방송영상학과 학과장 박미선 교수

생생한 영상, 그 속에 담긴 방송영상학과



박미선 교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학과장 박미선 교수라고 합니다.

Q. 방송영상학과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방송영상학과는 매해 88명의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방송 PD나 방송 작가 또는, 편집 감독이나 촬영 카메라맨과 요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가진 학생들이 방송 제작을 배우기 위해 방송영상학과에 입학해 이를 양성하는 학과라 볼 수 있습니다.

Q.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A. 교육과정에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 또는 영상 편집 실습이나 사운드 수업 등 여러 가지 장르별 제작 수업, 드라마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스튜디오 생방송 제작과 같은 여러 장르별 제작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은 'IFS(In-school Field Study)'라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내 현장 수업이라고, 교내 가상 회사나 공간이 구축돼 방송국과 같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현재 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A. 졸업 후, 방송 PD, 작가, 카메라맨, 편집 감독, 방송 기자, 또는 방송 보도국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방송계에 다양한 편집 회사들

이 존재하는데, 이들 회사에 편집 감독을 하고 계신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 기반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웹 영상을 만드는 제작 스튜디오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Q. 매년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가져오는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일단 방송영상학과 교육과정 자체가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만드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다수 구성돼있습니다.

교과과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이론보다 실습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일이 거의 학생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기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이에 흥미를 느끼며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공모전에 도전하는 마음들도 많아서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곧 졸업을 앞둔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제 곧 졸업 사회는 조금 더 익숙하니 준비를 잘해서 각자가 꿈꿨던 꿈들에 자기 잡아 나가고 제대로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필요한 부분이 뭐가 더 있는지 생각하며 잘 준비해서 사회진출을 했으면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채워 주는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연 수습기자

정지혜 졸업생 작품 <정순>, 로마를 흔들었다!

제17회 로마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정지혜 감독

지난 10월, 이탈리아 로마의 파르코 델라 뮤지카 오토리움에서 열린 로마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 정지혜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정순>이 심사위원 대상심사위원 대상(Gran Premio della Giuria)을, 주연 배우 김금순은 여우주연상(Miglior attrice)을 거머쥐었다.

로마 국제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2006년 출범해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영화는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중년 여성 정순(김금순)의 이야기다.

정순이 속수 무관함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영수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동의 없이 사내에 퍼뜨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정순이 스스로 벽을 깨고 주체성을 회복해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순'은 로마영화제의 공식경쟁 부문

초제작 16개 작품 중 유일한 한국 영화다.

앞서 이 영화는 지난 4월 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한, 주인공의 표정과 몸짓에 포인트를 맞춰 인간적인 수모와 모멸을 감당하던 한 여성의 결단을 힘있게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제70회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신인 감독 부문, 제66회 런던영화제 데뷔작 경쟁 부문 등에도 초청받았다.

올해 스텔여섯의 신에 감독인 정지혜 감독은 양산 출신이다.

<정순>은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받아 정지혜 감독의 고향인 양산(정순의 집, 공장, 폐차장 등)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정 감독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 씨네 21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정지혜 감독은 "대학교에 다니던 중 휴학을 하고 정순처럼 식품 공장에서 아르



▶<정순> 스틸컷

바이트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막연하게 공장의 이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공장에 근무할 때는 이모님들과 12시간 이상 시간을 함께 보냈다. 얼마보다도 가깝게 지내던 이모님이 행동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얼마도 일을 하러 갔을 때 이모님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관찰했던 것들을 시나리오에 많이 담으려겠다"라며 시나리오 집필 계기를 밝혔다.

또한, "시나리오 작업을 할 무렵만 해도 N번방 사건이 있기 이전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이라는 측면 때문에 짧은 연령대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시나리오 작업의 출발점이 됐다.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공론화됐다. 그럼에도 중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며 느낀 점도 영화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공장이라는 공간은 사람들 기계의 부품 중 하나처럼 감각하게 하는 곳이다. 그러한 구조에 오랜 시간 머물다보면 때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공장의 이모님들은 때때로 타는 어려움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내었다. 그런 지점을 쓰고 싶었다. <정순>을 쓰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말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중년 여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라며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인터뷰에서 정지혜 감독은 "방황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영화 <정순>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담아가는 정지혜 감독의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할 것이다.

자료출처 - [씨네21-JeonJIFF #6호] '정순' 정지혜 감독, 디지털 성범죄는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참신한 작품으로 눈길을 사로잡다

2022 G-Star '대형 게임사' 만큼 인기 절정!



▶졸업 작품 전시회 기념식

2022학년도 'G-Star(이하 지스타)'에서 우리 대학의 게임학과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참신한 작품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 대학의 게임학과는 매년 벅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서 졸업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과 바이어로 북적거리던 올해의 지스타에서 참여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우리 대학 게임학과 졸업 작품 부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e술의 e게임』에서 <2022 지스타에서 본 '가장 참신한 작품'>, <지스타 2022 'e'에> 출품작 소개로 우리 대학 게임학과 부스를 해 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스타 전시작품에는 ▲<신나 문방구>- Dream POPKY 팀 ▲<이슈 외전: 늑대 이야기>- Wolf 팀 ▲<종이마을 건설대작전: 수장한 주민들>-정설모를 사랑하는 모임 팀 ▲<드레공방>-옵니버스 팀 ▲<Primecore>-Piuda 팀 ▲<End&AND>-Two And 팀이 출품했다.

전시작품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 축제이자 글로벌 인디 게임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인디퍼펙트페스티벌(BIC) 2022'와 Unity(Made by Unity) 파이널 리스트 Top 3에 선정된 작품들도 있다.

11월 17일 지스타 개막식은 우리 대학

장제국 총장이 직접 지스타 부스에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작품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제작한 게임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직접 부스를 방문해 다음 달 정시를 앞두고 게임학과 졸업 작품 부스를 둘러보고 게임학과 입학 전형 및 향후 진로 등을 상담하고 지원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스타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만큼, 많은 글자의 게임회사 개발자 및 유명 크리에이터들 등이 우리 대학 부스를 방문하고 소통함으로써 기존 게임학과 기조인 기업과의 산학연계, 학생들의 조기 취업 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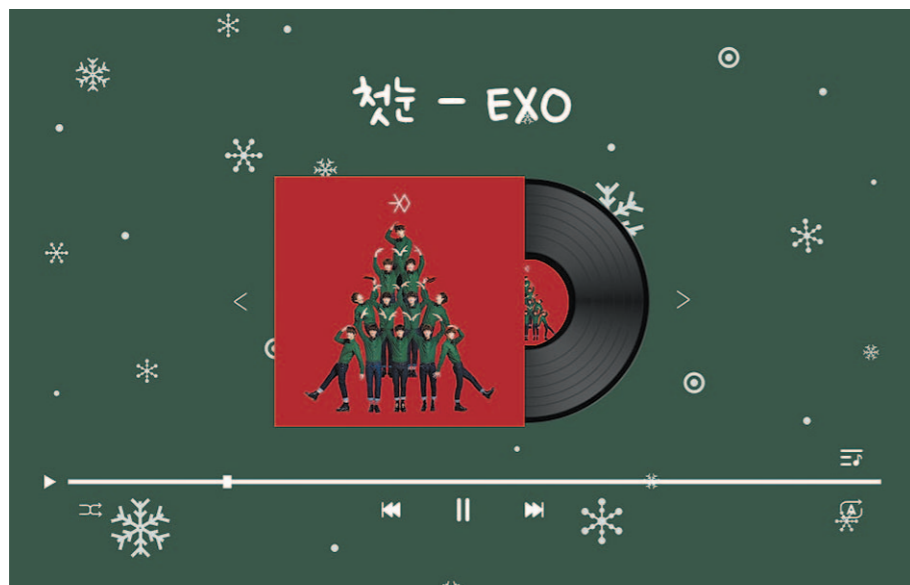
더불어 LINC 3.0과 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게임학과 교수님들이 이뤄낸 현장실무 중심의 완성도 높은 교육의 결과물이 지스타 졸업작품 전시회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한편, 게임학과는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 중 하나인 게임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머리에 흰 눈이 쌓일 때까지 듣고 싶은 노래!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국내 캐롤 추천



▶ EXO <첫눈> 커버 앨범

계절의 변화를 날씨가 아니라 빛의 길이 나 노래의 변화로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다. 봄에는 뱃짓엔딩, 여름에는 시원하고 청량한 댄스곡, 가을에는 가을이 오면, 요즘은 길을 걷다 보면 들리는 캐롤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3주가 남았지만, 캐롤을 들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곡도 있지만, 이번 겨울에는 국내 캐롤을 들으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도 좋을 것 같다.

EXO <첫눈>

도래 학생들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며 겨울을 맞이했을 것 같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라고 하면 '첫눈 오는 이별 오후에~'하고 노래의 첫 소절을 흥얼거리게 된다.

SM 간판 프로듀서인 '켄지'가 작사·작

곡을 맡았으며, 첫눈이 내리는 겨울날, 1년 전 떠나 보낸 첫사랑을 떠올리며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다.

<12월의 기적>, <December, 2014>, <불공평해>, <Sing For You>, <Universe> 등 다양한 엑소의 겨울 앨범이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첫눈이 올 때마다 음원 서비스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노래와 함께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 줄 첫눈을 기다려 보자.

소녀시대 <첫눈에>

미니 앨범 3집 <훗>에 실린 수록곡이다. 엑소의 <첫눈>과 마찬가지로 눈이 올 때마다 팬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다.

사랑을 고백하는 귀여운 가사가 이 노래의 매력이다.

'하루, 한 달 지나고 일 년, 이년 지나면 서로 신비감이 없어질지 몰라도, 그대의 까만 머리가 좋지만 그대의 머리에 눈



▶ 소녀시대 <첫눈에> 커버 앨범

이 내린다고. 웬지 그때쯤엔 들만 아는 세상이 생길 것만 같은 이 기분'.

대중적이지 않은 새로운 겨울 노래를 듣고 싶다면 이 노래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IU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제목에서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해의 캐롤에 <Santa Tell Me>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노래가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앞서 말한 두 노래와 함께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오를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고백송으로, 아이유의 맑은 목소리와 가사가 어울린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 때면 걸거리에 꼭 울려 퍼지는 노래.

핑클 <화이트>

2000년대 이전으로 내려가 보자.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어도 꾸준히 사랑 받는 캐롤이 있다.

DSP 엔터테인먼트에서 리메이크로 이 곡을 냈으며, 이어서 다비치, 하하×오마이걸, 더보이즈가 리메이크해 노래를 냈다.

더보이즈의 리메이크 이후 10대에게까지 사랑받는 노래가 됐다.

많은 이들의 리메이크가 있었지만, 그때 겨울 감성을 느끼려면 원곡을 들어야만 한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핑클의 노래를 들으며 겨울을 기다려 보자.

삼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밑지않은 관종언니'로 더 익숙한 이지혜가 단독으로 보컬을 맡고, 나머지 세 멤버가 각자의 랩을 보여 주는 구도의 노래다.

마찬가지로 발매된 지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련됐다.

시집 <너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 핑클 <화이트> 커버 앨범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해>로 유명한 원태연 시인이 작사를 맡았다.

그래서인지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처럼 가사 하나하나가 시의 한 구절 같다.

대놓고 겨울 노래는 아니지만 손이 시리고 추운 날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자꾸만 생각나서일까. 공기가 차가워지면 문득 생각난다.

MR. 2 <하얀 겨울>

가수와 제목만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야?' 하기 쉽지만, 막상 들으면 신나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들이 있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역시 마찬가지다.

'조금 기다려 줘, 나를' 하는 파트를 듣고 알아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슈가맨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다.

도입부의 종소리부터 겨울 느낌이 뿜선

핑키는 슬픈 사랑 노래. 명곡에 세월이 있을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마음을 울리는 노래다.

첫눈 오는 날 오후에, 눈을 핑계로 보고 싶은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건 기쁜 일이다.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겨울 노래들을 들으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 어떨까?

서로 달은 마음 위로 내리는 사랑을 만끽하는 것도 낭만적일 것이고, 아니면 노래 가사를 통해 셀 수 없는 공기만큼 커다란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필요한 게 없는 날도 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 온 세상이 물들을 때가 그렇다.

다가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다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 그날을!

김규리 기자
Orlarbfi@gmail.com

계묘년, 시작은 이렇게!

2023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방법



▶ 검은 토끼



▶ 2023년



▶ 계획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덧 저물어간다. 올해는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해가 되었을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를 뒤돌아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많은 행사가 열렸고 팬데믹 현상도 극히 줄어들어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한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학교는 개교 30주년을 맞이했던 한 해였기에 더욱 의미가 남는 것 같다.

올해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해가 지나면 다시 새해가 밝아오듯이 2022년이 가면 2023년이 올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띠?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띠였다면 2023년은 검은 토끼의 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육십갑자로 판단하는

데 계묘년에서 '계'는 작은 물, 비, 수증기, 안개, 구름, 장맛비를 상징하며 검은색을 뜻하고 '묘'는 작은 나무, 꽃, 낱물, 토끼를 상징하며 우리가 아는 토끼띠의 한자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의미를 더하자면 계묘년은 육십갑자가 100번째를 돌고있는 해다.

2023년도 달라지는 것

2023년도부터는 기존 연도에 비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첫번째로 최저시급이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가 증가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되는데, 드디어 월급 200만 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또한 병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값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병장 기준으로 67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두번째는 4인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과 장애수당, 자립 준비 청년수당, 부모급여 도입, 야간 연장 보육료, 농·축·수산

물 할인 지원이 증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예산안 편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 주요 행사

2023년도에는 여러 국제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2023년 초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카타르 도하에서도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1년 만에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 경기 또한 많이 개최되는데 야구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2023 월드컵이 이스탄불 클라식스 개최되고 중국에서 아시아컵이 개최된다. 또한, FIFA 여자월드컵이 호주, 뉴질랜드의 공동 개최로 이루어지며 U-20 월드컵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이러한 행사들이 갑자기 많이 개최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개최되어야 했던 경기들이 연기돼 2023년에 한꺼번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 행사, 스포츠 대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19가 전년도에 비해 해서 훨씬 많이 안정되고 곧 종식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새해를 생각하며 많은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의 기준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좌절과 실패를 겪지 않는 방법 또한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계획 세우기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들을 할지 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아직 뭘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할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할지 정했다면 그 정한 것들을 실천할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정확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만약 당신이 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 마련, 숙소 예약, 교통편 예약 등 할 일이 많다. 미리 계획을 해서 정해놓는다면 나중에 예약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일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아직 1, 2학년은 취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테지만 3, 4학년은 분명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취업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실습 ▲공모전 ▲포트폴리오 ▲고시 공부 ▲자격증 공부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준비에서 약간의 팀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3학년이라면 지금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학년 때는 졸업 작품 또는 졸업 논문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에 자격증이라

든지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023년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얘기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획을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2023년을 돌아볼 때는 한 해가 매우 알차고 뿌듯할 것이다.

요즘 시국이 많이 어렵고 갈수록 어렵게 변화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다면 언젠가 각자가 원하는 자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2023년 예산안
네이버 블로그 - 프리매쓰
'202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
심연속의정보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간단 정리
박상욱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국세청 실시간소득과약 제도(RTI) 콘텐츠 공모전

공모주제: RTI제도의 장점은? 국세청의 미래상은? RTI제도의 필요성은? RTI제도의 효과는? RTI제도의 과제와 해결책은?

공모대상: 대한민국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여하)

공모기간: 2022.11.10-12.06

- 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RTI)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2022.12.06(화)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아이디어/기획

2022 제1회 Present 자동차 산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주제: 미래 자동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06.15-22.12.07

- 제1회 Present 자동차 산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2022.12.07(수)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아이디어

대학생 외교연수과정

Public Academy of Diplomacy

2022년 1차 외국어 연수과정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1.10-12.06

- 국민의외교아카데미 제4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모집
- 접수기간: ~2022.12.13(화)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SK NEWSCHOOL 2023년 신입생 모집

2022.12.1(수) - 12.14(수)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2.1(수) - 12.14(수)

- SK 뉴스쿨 2023년 신입생 모집
- 접수기간: ~2022.12.14(수)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대외활동

2023 유니브엑스포 부산 학생위원장 모집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2.1(수) - 12.14(수)

- 2023 UnivExpo Busan 학생위원장 모집
- 접수기간: ~2022.12.14(수)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대외활동

삼성캐리어 삼성생명 금융연수 프로그램 1기 모집 요강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2.1(수) - 12.14(수)

- 삼성 Financial Networks 금융연수 프로그램 1기 모집
- 접수기간: ~2022.12.16(금)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발문치어링 CHEER UP! VOLUNTEER

2022 발문치어링 동아리 모집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1.10-12.16

- [KT&G복지재단] 2022 발문치어링 참여 봉사 동아리 모집
- 접수기간: ~2022.12.16(금)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2022 디지털윤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윤리 배우고 기프트콘도 받자!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1.10-12.16

- 2022 디지털윤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접수기간: ~2022.12.16(금)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우리는 디/프

LG디스플레이 대학생 인플루언서 디플 25기 모집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1.10-12.16

- LG디스플레이 대학생 인플루언서 디플 25기 모집
- 접수기간: ~2022.12.18(일)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

외국어 사냥해

주요경력, 경력저택, 시군/구청 등이 누리집, 보도자료, 소식지, 안내문, 시찰문, 표판 등에 사용한 외국어를 찾아 시은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 신고해 주시오.

행사 기간: 10월 31일 ~ 12월 25일

- 외국어 사냥해-1등 사냥꾼 되어 아이패드 받자!
- 접수기간: ~2022.12.25(일)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공모전

KBS1 Radio 대한민국 경제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총상금 6천만원!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07.11-12.30

- [KBS] 대한민국 경제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 접수기간: ~2022.12.30(금)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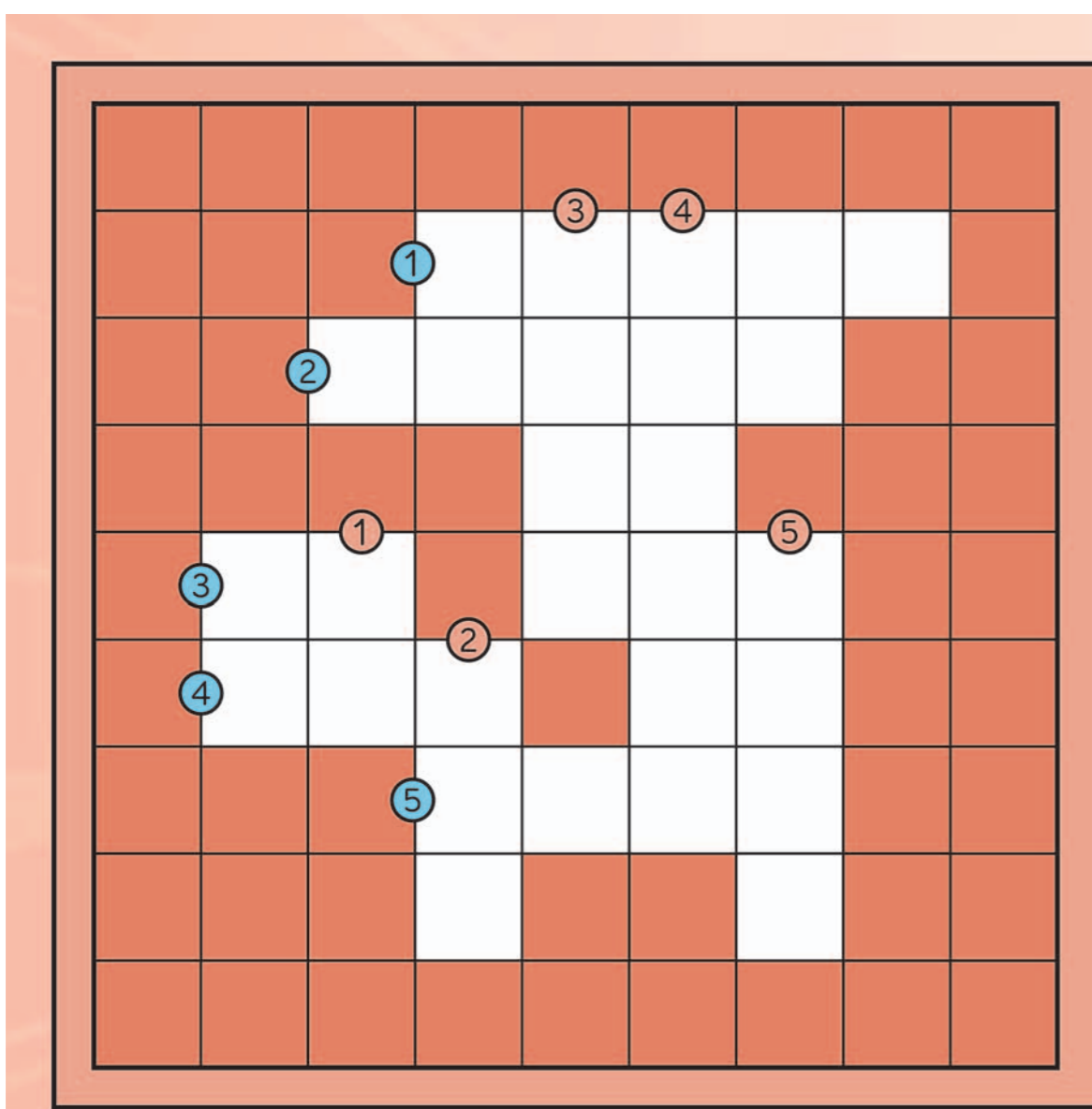
2023 DB WALL ST에서 만나요!

세계 금융의 강인한 힘! DB는 글로벌 금융의 리더입니다.

공모대상: 대학생

공모기간: 2022.11.10-12.16

- 제13회 DB금융·경제 공모전
- 접수기간: ~2023.01.12(목)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경제/공모전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날말퍼즐

- 가로**
- 1 통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
 -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적 축일
 - 3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
 - 4 신문을 편집하여 발간하는 회사
 - 5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실내 마감재나 조명기구,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총칭
- 세로**
- 1 의심하여 물음 또는 의심스러운 점이나 문제
 - 2 링크가 내장되어 있고 웹트나 나일론 등의 거친 천 재질의 심을 가진 펜
 - 3 유대교와 기독교 등의 성지로, 예루살렘이 수도인 곳
 - 4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자동으로 이뤄지는 공장
 - 5 주로 일기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자와 같은 것

- 참여방법**
- 1 날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견의함에 넣은 후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 2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 12월 30일까지 날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12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